

코로나19 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신 곁에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보고서
SEOUL LABOR CENTER



코로나19
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신 곁에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보고서
SEOUL LABOR CENTER

노동자의 노동이 제 가치를 찾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서울시로부터 2014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고픈 노동, 억울한 노동, 불쾌한 노동, 불안정한 노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노동인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노동자들이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노동이 아름다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 돈 문**

코로나 재난 시대 취약노동계층의 방파제로 역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시작된 작년은 한해 내내 어렵고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도처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졌고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극심해진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겨운 일상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에 저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심이 깊었습니다.

우선 늘어난 노동상담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아파트경비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던 만큼 콜센터를 비롯해 방역물품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연구 사업과 함께 조만간 오픈하게 될 노동포털 준비도 진력해 왔습니다. 쉽터를 통해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편의 제공과 권익 신장 활동도 벌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런 사업들을 권역별 센터, 자치구센터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진행하면서 서울시 유일 광역센터로서 제몫을 다하고자 애썼습니다.

향후 몇 년간 저희 센터는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서울시지원 노동센터들을 아우르는 '광역노동허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노동상담과 교육을 기본사업으로 해서 네트워크와 정책연구 기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쉽터의 상근자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2020년 활동보고서가 교두보가 돼 이후 센터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

인사말

2

- 수탁기관 이사장 인사말
- 소장 인사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소개합니다

6

2020년 리뷰

8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신 곁에 함께한 2020년

2020 우리 노동현장 Live

12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로 불안한 노동자를 서울이 지원합니다”
 - (1)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 (2)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동향과 정책
 - (3)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서울이 보호합니다”
 - (1) 청소년 노동권 보호 법률지원
 - (2) 2020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협력사업
 - 장애인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서울이 보장합니다”
 - (1)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노동
 -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서울이 높힙니다”
-

EVENTS

- (1)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사업
- 콜센터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서울이 개선합니다”
 - (1)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지원 사업
-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을 서울이 해결합니다”
 - (1) 서울지역 도심형 제조업 종사자 안전건강을 위한 정책과제
- 가스검침 노동자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을 서울이 지킵니다”
 - (1)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실태조사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는

40

노동의 가치를 지킵니다

- 거버넌스 “노동의 가치를 같이함께”
 - (1) 노동자 조직화 지원
 - (2) 노동 커뮤니티 지원
 - (3) 서울시·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 교육과 정책제안 “노동의 가치를 뿌리깊게”
 - (1) 서울노동아카데미
 - (2) 일하는 서울시민의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 홍보와 상담 “노동의 가치를 보다널리”
 - (1)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공동캠페인 제작
 - (2) 상시노동상담 & 2019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 쉼터운영 “노동의 가치를 안락하게”
 - (1) 休서울노동자쉼터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에 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일에는 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취약노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각종 권리교육과 캠페인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일하는 당신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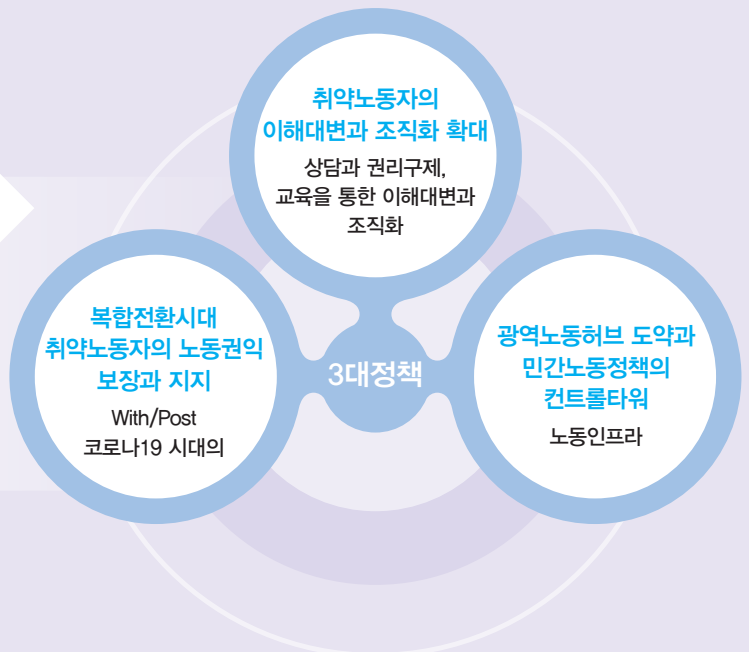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의 CI를 소개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심볼은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 단어의 첫 자음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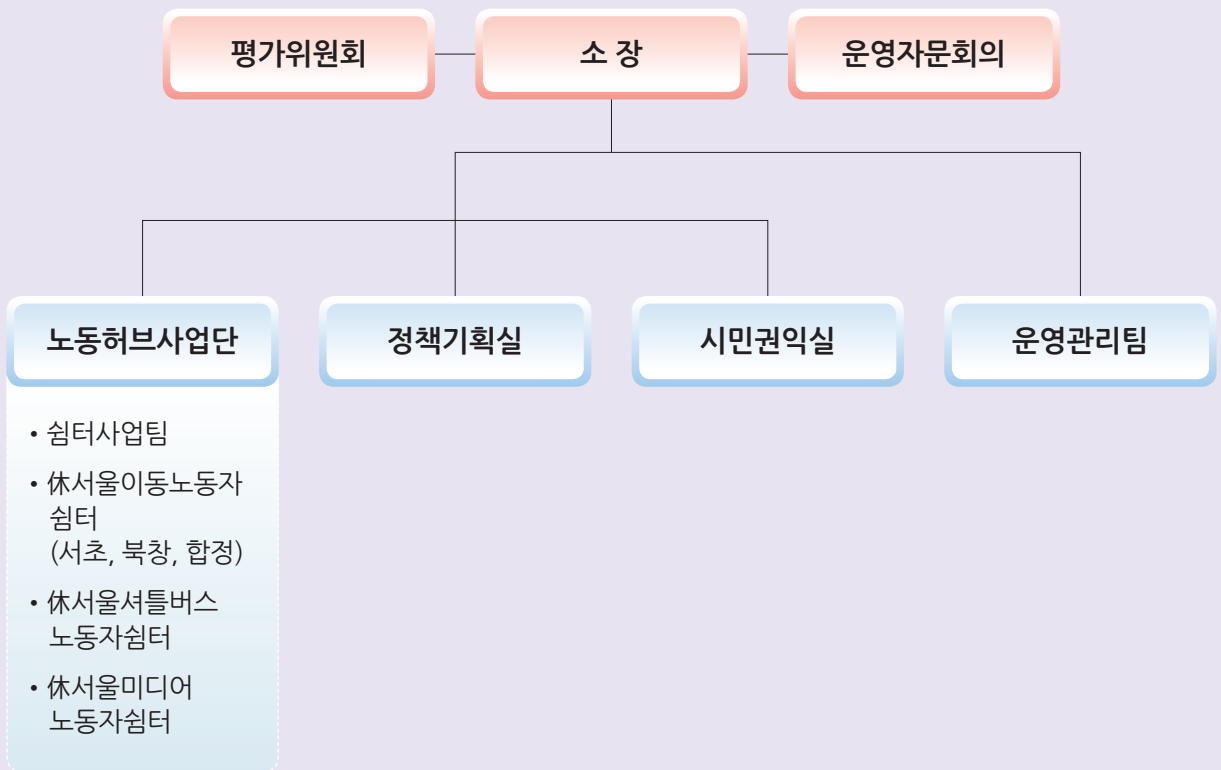
비전/목표

VISION

일하는 서울시민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돕고
조직과 조직을 잇는
광역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조직은 이렇습니다.



Information

홈페이지 www.labors.or.kr

대표번호(02-6925-4349) / 상담번호(1661-2020) / 팩스(070-8250-4349) / 대표 이메일 labors@labors.or.kr

상담시간 월~금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신 곁에 함께한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개관 6년을 맞이하여 광역노동허브 역할과 기능 강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방안 체계화로 지원방안 내실화, 취약노동자 조직화지원과 사회적 대화 모델 사업 추진을 중점방향으로 삼고 사업을 전개해나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한해동안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방식의 사업진행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대면사업을 모두 축소 또는 취소를 해야 했고, 모임 및 토론회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피해 역시 평등하지 않았기에 위기에 더욱 더 취약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사업, 지원사업 등을 재편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의 시대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가능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롭게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변화와 도전도 있었으나 당연하게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0

01월

- 9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17일 • 노동센터협의회
- 20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03월

- 5일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매뉴얼 발간
- 11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12일 • 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참여센터 방문
- 17일 • 경비업법 의무 준수 행정계고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 긴급현안 대책 마련 교육 세미나
- 20일 •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참여센터 방문
- 27일 • 코로나대응 긴급간담회
- 31일 • 2020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협약식 & 오리엔테이션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소식지 발행 및 배포

02월

- 4일 • 노동공제회집담회
- 10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12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제1차회의
- 13일 • 봉제공제회 합동워크숍 및 1차 이사회
- 21일 • 노동센터협의회
- 22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5일 • 여성의날 관련 카드뉴스 발행
- 노동자 참여 노동정책 필요성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

04월

- 1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3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교육팀 1차 회의
- 6일 • 총선 노동관련 공약 관련 카드뉴스 발행
- 10일 • 노동공제회 포럼 1차
- 15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2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체 제2차 회의
- 24일 • 노동센터협의회
- 25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도심 제조업 현장 파악을 위한 노동단체 연석회의 참석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 문화예술노동연대
- 신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담당자 간담회

05월

- 6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현장강사단 양성교육
 - 7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소식지 제3호 제작 기획회의
 - 8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14일 • 봉제공제회 2차 이사회
 - 15일 • 노동센터협의회
 - 신입직원 및 신규센터 직원교육 1차
 - 18일~29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지역 홍보요원 채용 및 현장순회
 - 20일 • 아파트경비노동자 처우개선 간담회
 - 22일 • 신입직원 및 신규센터 직원교육 2차
 - 25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
 - 26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누구나 할 수 있는 '일하면서 쓰기')
 - 27일 • 여성센터장 1차 간담회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
 - 28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9일 • 신입직원 및 신규센터 직원교육 3차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노동조합 A to Z)
 - 30일~6월 1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워크숍
- ^^^
- 도심 제조업 현장 파악을 위한노동단체 연석회의 참석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타투유니온)
 -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상 교육 교안 제작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소식지 발행 및 배포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담당자 간담회

06월

- 3일 • 2019년 활동보고서 발간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나의 두 번째 노동)
- 9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
- 15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1차 교육신청, 접수
- 17일 • 지역별 아파트경비노동자 연석회의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인문특강(서울노동역사)
- 18일 • 노동공제회 포럼 2차
- 19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노동센터협의회
- 23일 •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07월

- 1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2차 회의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3일 • 여성센터장 2차 간담회
- 7·8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법률강사단 워크숍
- 15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3차 회의
• 운영협의회 개최
- 16일 • 노동센터협의회
- 17일 • 경비노동자 안전 관련 카드뉴스 발행
- 20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1일 •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회 상생협약식
- 24일~25일 • 센터장워크숍
- 26일 • 봉제노동자모임 봉봉산우회 산행
- 27일~8월 7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지역 2차 홍보요원 채용 및 현장순회
- 28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9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간담회
• 자문회의 개최
- 30일 • 제1차 여성센터장 회의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제3차 회의
- ▲▲▲▲ • 노동단체 역량강화교육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소식지 발행 및 배포

08월

- 13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4차 회의
- 31일 • 서울노동아카데미 2차 교육신청, 접수

09월

- 1일 • 제2차 여성센터장 회의
- 2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4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5차 회의
- 14일 • 서울시민과 나는 노동상담 2019 발간
- 15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17일 • 노동센터협의회
- ▲▲▲▲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치료사 다모임)



11월

- 2일 • 온라인서울노동아카데미 오픈
- 3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6일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미대의 외침)
- 10일 • 제4차 여성센터장 회의
- 13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7차 회의
- 16일 • 필수노동자 관련 카드뉴스 발행
- 19일 • 노동센터협의회
- 23일~12월 18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동캠페인 진행
- 24일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 26일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27일 • 봉제공제회 1주년, 청계피복노조 50주년 공동기념행사

10월

- 13일 • 제3차 여성센터장 회의
- 15일 • 노동센터협의회
 - 봉제공제회운영위원회, 봉제공제회 이사회
- 16일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버리연대)
- 20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6차 회의
- 21일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여성노조)
 - 전태일3법 관련 카드뉴스 발행
- 22일 • 노동공제회 포럼 3차
- 31일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치료사 다모임)
- 28일~11월 25일
 -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시범운영
- ▲▲▲▲ • 자치구센터 법률, 교육 담당자 간담회

12월

- 3일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모임 제8차 회의
- 16일 • 서울지역 일하는 장애인 노동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최종발표토론회
- 17일 • 2021년 바뀌는 노동정책 관련 카드뉴스 발행
- 23일 • 노동센터협의회
- 28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영상물 제작
- ▲▲▲▲ •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기념품, 달력 등 제작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 노동단체 역량강화교육 <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 제작
- 서울시 노동센터 종합안내서 <슬기로운 노동자생활> 발간
- 하반기 정책전문위원회
- 동향과 이슈 2020-01호 서울의 코로나19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 동향과 이슈 2020-02호 고용보험 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 동향과 이슈 2020-03호 서울의 노동동향 2020
- 동향과 이슈 2020-05호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 2020년 노동권리보호관 간담회

2020 우리 노동현장 Live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은
2020년 노동현장에서, 노동취약계층의 노동권익을 위한
최선두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내내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노동자, 청소년, 이동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들을 우선 지원하고,
또 장애인, 가스검침 노동자, 도심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로 불안한 노동자를 서울이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서울이 보호합니다"
장애인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서울이 보장합니다"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서울이 높힙니다"
콜센터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서울이 개선합니다"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건강을 서울이 해결합니다"
가스검침 노동자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을 서울이 지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노동자를 서울이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욱 매서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권리구제 지원절차’를 마련해 2020년에 160건의 권리구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01

사업 개요

사업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고, 이동과 모임 제한으로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음. 방역조치에 의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 소득감소 등이 나타나며,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줄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함
-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경제 위기시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회복이 시작되면 그 혜택은 가장 나중에 경험하기에 피해가 가장 큰 집단임
- 이에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업목표

-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생활환경 변화, 애로 및 제안사항, 정책수요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함



사업 결과

-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대상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 영향과 정도, 정책적 요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함

실태조사 결과

-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됨
- 일감은 줄고,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실직을 경험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실직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였으며, 그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였음. 고용위기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노동자의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정책방안

- 취약계층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가입대상 발굴 및 가입 유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고려
- 코로나19로 전직수요가 상당하여 전직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필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을 활용한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 코로나19로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취약계층노동자 대상의 상담 및 권익보호 지원
- 임금 및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 중 실업급여 및 정부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한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취약계층노동자의 집단적 권익보호를 위한 이해대변 조직 지원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동향과 정책

02

사 업 개 요

사업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서, 그 충격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분포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쏟아져 나와 혼란스러운 면이 존재함

사업목표

-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고용충격의 실태를 고용보험통계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지원정책의 현황과 유형을 분류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사업 결과

코로나19의 고용충격 실태

- 2020년 취업자 수 최근 3년 중 가장 나쁜 수준임. 3월과 4월에 급속도로 줄은 이후 8월까지 회복하였지만, 9월에 다시 급락함
- 2020년 여성의 고용 추이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였고, 20대와 30대 코로나19 고용충격 가장 크게 나타남
-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관리전문직과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고용충격 확인됨. 풀타임과 초과노동 빠르게 줄고, 초단시간과 단시간 노동 증가. 코로나19로 서울의 니트인구 급증
-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함. 2020년 1~8월까지 수급자는 2018년 총 수급자를 넘어섬. 특히, 여성과 20대가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함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함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 임금노동자를 위해 유급휴직 및 고용유지를 최대한 유도하는 정책과 무급휴직에 이미 처해진 대상에게 정부가 지원해줌. 또한, 사회보험료 경감, 해고 및 구직, 노동상담 및 심리상담, 가족돌봄 지원, 생활비 저리 융자의 정책들이 주요하게 있었음
- 특고·프리랜서를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생활비를 융자해주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및 훈련을 지원하는 대응들이 있었음
-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과 사업을 지원해주고,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대책들이 발표됨

보고서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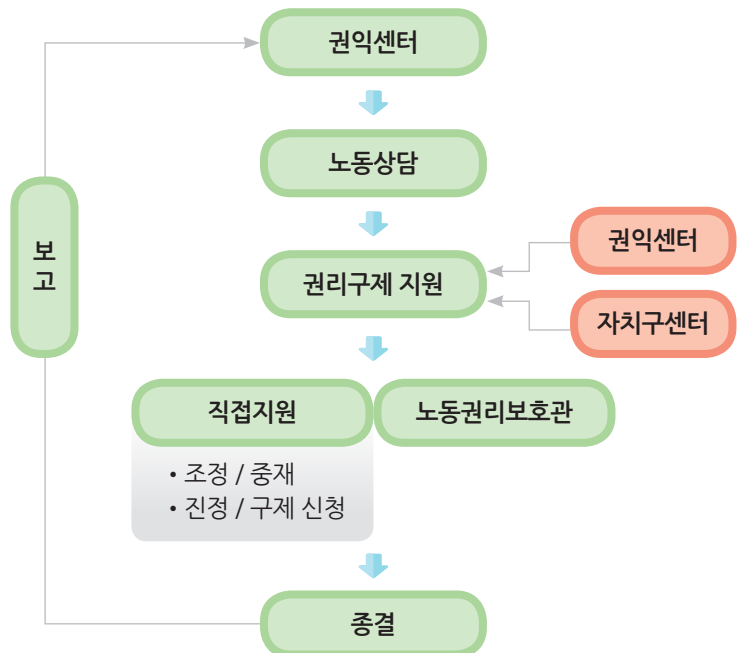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지원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한편, 상담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수입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사업 결과

2020년에는 2019년 134건에 비해 26건 증가한 160건 지원했습니다. 특히 경비노동자 지원 18건과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원을 진행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자치구, 권역) 센터별 추천을 받아 3기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해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이 증진되면서 지역센터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부당해고구제신청	체불진정	산재신청	소송	합계
건수	39	102	17	2	160

<2017~2020년 추진실적>

	2017	2018	2019	2020
달성	154	138	134	160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서울이 보호합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쉽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법률지원과 더불어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권 상담에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법률지원



사 업 배경과 목 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권침해(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위반, 법정근로시간위반, 폭언·폭행·성희롱, 산업재해 등)에 대한 예방적 보호(노동법교육과 상담)와 권리구제지원(조정과 법적구제절차 지원)을 통해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 업 결 과

-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방문상담 등 대면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고 대부분 SNS상담과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구분	SNS상담	전화	방문	찾아가는 노동상담	권리구제지원
건수	98	386	11	3	7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공동강사단 구성하고 서울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협력사업 홍보하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학교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사업운영절차 및 서식 배포) 사업운영절차와 서식(안) 마련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배포
- (공동강사단 구성) 11개 센터가 추천한 공동강사단 구성 (274명) 완료
- (사업 홍보 및 안내) 서울지역 특성화고 대상 교육 신청 안내문 배포 완료
- (특성화고노동인권교육실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접수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진행 (2개 자치구 2개교 19학급 437명) 완료
- (기타 청소년노동인권사업 협력)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에 자문 등 참여 협력

사업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 더욱 긴밀한 협업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애초에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신청 학교가 감소하고, 신청한 후에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급별 온라인 교육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서울이 보장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장애인들의 노동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정책적 사각지대인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내 장애인 임금노동자에 주목해 서울지역의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노동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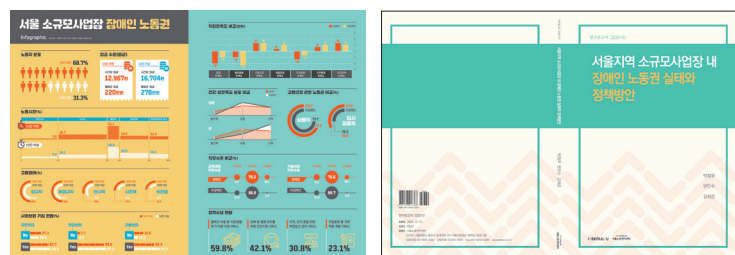
사업 개요

사업배경

- 장애인은 수동적·보호의 존재를 넘어, 삶과 노동의 주체로 여겨지는 시대적 흐름이 커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정책은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지역의 산업·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사업체에 대한 세밀한 지원, 직업안정에 대한 목표 강화와 같은 섬세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장애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사업체 규모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

사업목표

- 서울지역 50인 미만의 민간사업장 내 장애인 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 노동권 실태와 인식, 정책 수요를 공개데이터 분석, 당사자 설문조사, 당사자·장애인 단체·사용주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봄
-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 향후 정책의제, 정책방안을 제시



사업 결과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들의 노동실태

- 서울지역의 장애인 임금노동자 중 상당수는 50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었음. 전체는 6만 6천 명이고, 이 중 50인 미만은 68.7%(4만 5천 명)이었고 50인 이상은 31.3%(2만 명)를 차지함
- 50인 미만은 50인 이상보다 임금 실태가 열악하고 최저임금 미만과 저임금의 비중이 높았음. 단시간 노동이 많고, 5일 미만의 노동일수가 많은 특징을 보였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컸음. 공통적으로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모두 비정규직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50인 미만은 50.6%가 비정규직으로, 50인 이상보다 그 비중이 더 큰 특징을 보였음
- 50인 미만과 이상은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금전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으나, 50인 미만은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표준 작업장 확대, 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50인 미만은 일자리의 질 개선, 이직·전직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라는 특성을 보임. 한편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당사자가 희망하는 고용·노동정책 중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들은 출퇴근 비용과 같이 직장생활 비용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스로 나타났음

정책방안


- 1) (장애인 노동정책 강화)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내 장애인 노동정책 강화
- 2) (교육, 상담, 권리구제) 장애인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제도의 전문화, 장애인 노동권 교육사업 도입



- 3)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 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인증제·사례관리 도입, 장애인 노동권의 서포터즈 도입, 장애인 노동권 연구조사 강화
- 4) (노동자 건강·안전, 복지) 사업장 주치의 제도 시행, 출퇴근 교통바우처 발행,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직업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실시, 공동 편의시설 설치
- 5) (노동자 조직화 지원) 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쿼터제 도입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이동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서울이 높힙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퀵서비스, 택배, 배달 등의 이동노동자들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권익과 안전을 위해 건강, 금융, 주거, 법률 등의 기초상담과 교통사고 관련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 건강검진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사업

01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상담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상담 협력기관 간담회를 실시했고 2021년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사업에 응모하여, 합정센터 및 북창센터 2개소 선정, 관련한 약정서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 2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결과

- 주거·금융·건강상담 협력기관 간담회(각 1회씩 총 3회) 실시
- 법률상담 협력기관 간담회(2회) 실시
- 협력기관 간담회를 통한 센터 기초상담 실적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초보대리운전자 산업재해 예방교육, 이륜차 자가정비교실, 셔틀버스 기사 노동인권교실, 세무교육, 금융강좌 등 기획강좌, 노동인문학 산책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결과

- 대리운전 노동자 직무역량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2020년 대리운전 안내서 500부 제작 및 배포
- 이륜차 운전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퀵매뉴얼수첩 3천부 제작 및 배포
- 배달 이륜차 준법운영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캠페인 진행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남대문경찰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 진행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서울이 개선합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700여명의 콜센터 노동자에게 공기청정기, 마스크, 간이칸막이,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긴급지원했습니다.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지원 사업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콜센터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과 연계하여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지원했습니다.

사업 내용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지원금액 : 감염예방 품목 사업주 구입비의 20%(최대 5백만원/예상 사업체수 210개소)
 - 지원품목 : 집단 감염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필요한 예방품목(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등)
- 취약계층 노동자(콜센터 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 지원목적 : 방역물품 지급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
 - 지원대상 : 콜센터 노동자 약 3,700 여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약 12,500 여명
 - 지원물품 : 마스크 등 방역물품



○ 민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 지원목적 :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휴게시설 개선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
- 지원대상 :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 지원내용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과 휴게시설 환경 개선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배정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한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콜센터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에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 환경개선 및 취약노동자(아파트 경비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방역물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을 서울이 해결합니다”

서울에서 봉제, 인쇄, 기계/정비, 주얼리 업종에 종사하는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안전방역 물품을 긴급지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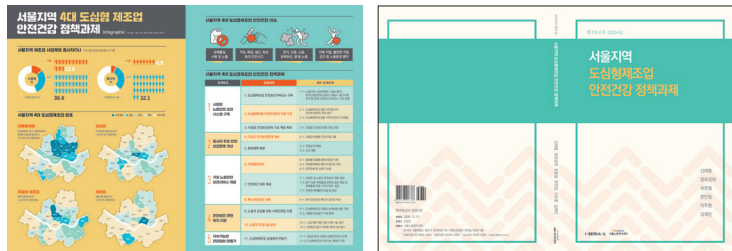
서울지역 도심형 제조업 종사자 안전건강을 위한 정책과제

01

사업 개요

사업배경

- 오랫동안 도심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서울지역 제조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로, 오래된 건물에 낡은 장비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열악함
-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환경은 종사자의 안전건강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대표적인 도심형제조업인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업종은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 먼지·소음·진동·가루·연기 등 유해물질 노출, 끼임·찔림·베임 등의 안전사고, 근골격계·호흡기·피부질환 유발 위험 등의 안전보건 문제 상존함
- 이에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연구 필요함



사업목표

-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다수인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 문제는 개



별 사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 서울시 등이 참여하여 현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의 장 필요함

- 현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함
-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가 중심의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도심형 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를 개발함

사업 결과

-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5대 정책목표, 11개 정책과제, 20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
-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거버넌스 구성, 안전건강 관리 지원 구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초 역량 확보의 정책과제 제시
- 정책목표2 : 종사자의 안전보건 문제 개선으로, 업종별 주요하게 발생하는 안전보건 문제 개선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제안
-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 정보제공, 특수건강검진 지원의 정책과제 제시
- 정책목표4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지원과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를 정책과제로 제안
- 정책목표5 : 상생일터 만들기로, 공공조달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제안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을 서울시 지킵니다”

다수의 사람과 마주치는 가스안전점검·검침 노동자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집중 직종인 가스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젠더적 시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실태조사



사 업 개 요

사업배경

- 최근 플랫폼 노동 확대, 임대 물품 관리 증가, 가스점검검침 등 직접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하는 방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하는 작업환경 실태는 파악되지 않음
- 2018년 가스검침을 하는 여성 방문노동자가 이용자의 집 방문 시 이용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여성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이 알려짐
-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안전보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사업목표

- 서울지역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통한 안전과 건강 문제점 파악
-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제언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가스 안전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



사업 결과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첫째, 노동시간과 임금, 목표 할당가구 등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즉, 초과근로의 문제, 목표 할당가구 수의 문제, 임금의 문제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고, 이에 대한 중단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됨
- 둘째, 업무 중 부상의 문제와 산업재해 신청이 낮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셋째, 업무상 고객으로부터 겪는 부당한 경험에 대한 조직적 지지와 지원의 측면이 필요함
- 넷째,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그 외 형태)와 원청회사별로 4대보험 가입, 할당지역 배정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노동조합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계약관계가 원청 직원 혹은 직고용 형태로 전환되어서 좀 더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고용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

정책방안

-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직업군 변경: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격 및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포함하는 직업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업무 표준화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서울시 및 가스공사에 보고되는 관리 세대수와 실제로 담당하는 세대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산술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및 세대의 특성, 센터의 직원 구성, 검침 및 점검 노동자의 처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이 필요
- 전문성 인정 제도와 정책 마련: 방문노동이자 이동노동이며, 옥외노동과 옥내 노동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가스 검침 및 점검 노동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간주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의 해소, 도시가스 검침 및 점검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공공성 인정, 그리고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공적영역에서 확보할 것이 요구됨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의 가치를
지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에도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 협력 사업,
노동의 가치를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는 교육과 연구사업,
노동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홍보와 상담사업,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안락히 누릴 수 있는
쉼터 운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버넌스 "노동의 가치를 같이함께"
교육과 정책제안 "노동의 가치를 뿌리깊게"
홍보와 상담 "노동의 가치를 보다널리"
쉼터운영 "노동의 가치를 안락하게"

“노동의 가치를 같이함께”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노동의 가치를 같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구축에 몰두했습니다. 아파
트경비원과 플랫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후원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모임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서울 내 노동센터 간의 사업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의 토대 마련하고 공동홍보, 공동캠페인 등 협
업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노동정책에 따라 다양한 노동자조직화를 지원하고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과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성과를 조직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제안하고 봉제인공제회 건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품은 공제회 모델'을 확산 추진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사업 내용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

- 사업내용
 - 2018년부터 진행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특별대책반의 조직화 성과 지속 추진
 -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입주자·대시민 언론홍보 사업
 - 당사자 주체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당사자조직화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역지원체계 구축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식(국회)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고최회석 경비노동자 추모기자회견
(2020. 5. 12)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연석회의
(2020. 6. 17)

○ 사업방법

- 자치구별 아파트경비노동자 현장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 3개권역 현장강사단 양성을 위한 주체적 조직화 지향
- 체계적 교육집행을 위해 전문적 교육단체와의 협업 진행
- 주체적 조직화를 위해 아파트경비노동자 공통소식지 발간
- 아파트경비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입주자·대시민 홍보물 제작
-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조직화 집행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
-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서울 전 자치구로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 성과 기대
- 집중적인 조직화 및 홍보를 위해 유니온코디네이터 일시적 채용을 통한 성과 창출

노동공제회 포럼 운영

○ 사업내용

- 2019년 봉제인공제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회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조직화모델 확산에 기여
- 센터 내 각 팀의 고유 업무와 조직화 지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구축
-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협의회를 통한 노동공제회 포럼 운영 연계망 구축
- 노동상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되는 조직화 지원요청에 대한 내·외부 자원 연계

○ 사업방법

- 노동공제회 포럼 협의체 운영(총 6회)
- 노동공제회 포럼 전문가 초청 분기별 워크숍(총 4회)

사업 결과

‘노동조합을 품은 공제회’라는 실험적 조직화모형을 운영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법률지원, 정책연구, 기획협력, 서울특별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이 협력하여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상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만들고, 경비노동자를 위해 상담, 권리구제, 교육, 자조모임 설립, 홍보캠페인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2019년 4개 지역에서 2020년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동공제회포럼
구성집담회
(2020. 02. 04)



봉제공제회 홍보현수막(2020. 06. 20)

노동 커뮤니티 지원

02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비조직·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신규 노동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 커뮤니티 양성과 소규모 노동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역량강화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작은 노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전통적 노사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독립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성화고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 / 초단시간 노동자 등) 소모임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발굴
 - 지원 방식 : 취약계층 노동 의제를 주제로 교육, 워크숍, 연구·조사, 캠페인, 홍보, 탐방, 취미활동, 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3인 이상 커뮤니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 대상 : 노동조합 및 민간 노동단체 활동가, 비조직 노동자, 노동 현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시민 등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 지원
- ※ 타 지자체지원센터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지원 유형 및 규모>

구분	내용
지원 유형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모임 또는 취약계층 노동자 현안으로 기획한 프로젝트 추진 단위
지원 규모	팀당 3백만원~5백만원(최대 25백만원) 내 자율편성
지원 단체 수	지원금 총액 범위 내 선정(최소 5개, 최대 8개 지원)

○ 8개 단체 지원금 총액 25,000,000원

지원단체명	지원예산
치료사 다모임	420만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	400만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50만원
미대의 외침	330만원
벼리연대	300만원
그냥 좋은 여성노조	300만원
굿프렌즈	200만원
문화예술노동연대	200만원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최종평가 워크숍 : 사업 추진성과보고, 외부전문가 평가 및 자문, 사업 참여후기 공유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단체들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단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총 5개 단체) 제작
- 노동단체 역량강화교육 <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 제작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기획교육을 워크북 제작으로 변경해 배포, 노동사업 기획에 필요한 과정(조사, 기획, 모니터링&평가)별 세부 실행 방안으로 구성

🌐 워크북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total/page/1/post/89>



○ 서울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교육

- 2019년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역량강화교육 참가자 대상 교육 평가 설문 조사 결과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노동사업 운영과 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기획, 운영/홍보/퍼실리테이션/캠페인 등 4회차로 구성된 실무 역량강화교육 진행(주제 변동 가능)
- 교육 대상 :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수행단체 포함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 교육 세부 계획(직무교육 중심으로 계획한 교육 주제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 단체 활동 방향 모색으로 변경함)
 - ※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업설명회, 협약식 취소 및 1차 역량강화교육 연기
 - ※ 2차 역량강화교육 워크북 제작 및 배포로 변경



사업
결과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노동자 조직 발굴을 위해 소규모 노동커뮤니티 구성과 예산, 사업 역량강화 지원하고 지원 유형을 세분화(10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 노동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예측과 비대면 실무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역량강화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03

서울시·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5개구로 확대되는 자치구센터, 권역센터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광역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권역·자치구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주요시책의 이해를 촉진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며,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행 성과를 높이고 광역단위 노동정책의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내용

- 노동자종합지원센터협의회 논의 및 공동사업 수준 강화
 - 기본사업(교육, 상담) 부분에 대한 공통매뉴얼 마련에 따른 통합관리 강화 방안 논의 및 시행
 - 노동자조직화지원사업과 서울형 노동자 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기획 사업 논의 및 시행
 - 이용자 관점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를 위한 통합홍보기획안 논의 및 시행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논의 및 시행



2020 슬기로운 노동자 생활
노동센터통합안내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2020. 04. 25. 마포센터)

사업 결과

- 분기별 서울시-노동센터 정례협의회 개선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표단 구성

정기적, 안정적인 회의로 센터간 사업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고, 신입직원교육, 간담회를 통해 신규센터를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사업, 노동안전 지하철 공동홍보, 공동캠페인 등의 협업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노동센터 종합안내서 발간으로 대시민용 노동센터 통합 홍보내용의 기초를 마련하고 여성센터장회의 구성(20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리더십 강화 및 젠더 감수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도 주요 성과입니다.



노동안전 지하철 공동홍보
(2020. 05~06)



2020센터장 워크숍
(2020. 07. 24)

“노동의 가치를 뿌리깊게”

서울노동센터는 2020년에도 교육과 정책제안사업을 지속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법률과 노동인권, 인문학 교육으로 구성된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서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정책제안 사업의 결과로 일하는 서울시민 제안 플랫폼을 시범 오픈해 노동자들의 관심주제, 애로사항, 서울시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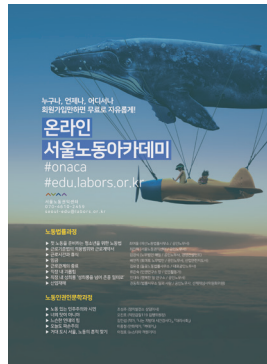


사업 배경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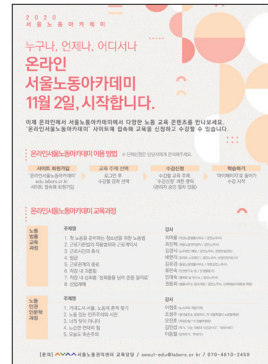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교육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노동법률과 노동인권·인문학 교육으로 구성되는 찾아가는 교육과 교육대상을 특정해 진행하는 맞춤형·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찾아가는 교육 : 2개 과정 16개 주제, 집합(대면)교육과 온라인(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연간 138회, 2,760명 교육 진행
- 기획교육 : 4개 과정 12회 330명 교육 진행
 - ※ 정기노동법률교육, 사업주노동법률교육, 상담지역량강화교육(연간 4회, 80명), 노동특강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 (광고)



2020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안내(웹포스터)

사업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으로 기획했던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 자료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사업 효율을 높였고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한 교육을 실시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자 설문 결과, 이용자들은 아카데미의 콘텐츠에 4.25점(5점 척도)을 부여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교육 이용자 총 2,926명(목표 대비 95%)
- 온라인 교육 추진 현황(온라인서울노동아카데미 edu.labors.or.kr)
 - 온라인 교육콘텐츠 28개 주제 68개 차시 / 홍보용 영상 2종 제작
 - 온라인 교육 이용자 2,461명
- 교육 사업 홍보
 - SNS(Facebook) 유료광고 및 일간지 지면광고 진행
 - ※ 온라인교육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중 추가 광고 진행
 - 유관기관 및 이전 교육 참가자, 취업지원기관 등에 홍보 공문 발송



홈페이지 2020년 서울노동아카데미 2차 신청접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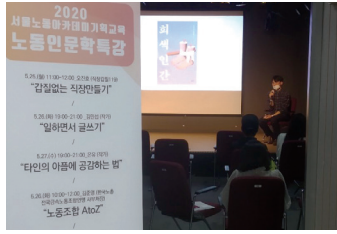
[온라인서울노동아카데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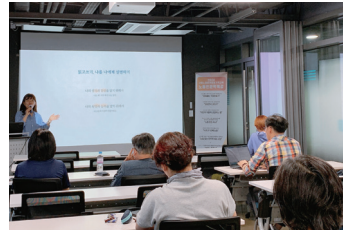
교육담당자 모임



특강_갑질없는 직장만들기(오진호)



특강_일하면서 글쓰기(김민섭)



특강_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은유)



특강_노동조합 A to Z



특강_나의 두 번째 노동



특강_노동있는 민주주의와 시인



노동법률강사단 워크숍(1차)



노동법률강사단 워크숍(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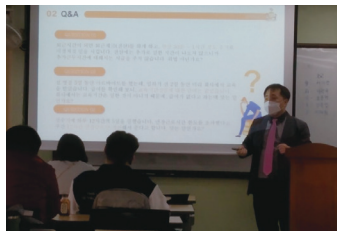
사업주 노동법률교육 기획회의 (2회차 강사 참석)



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유튜브 교육 (이지영 노무사)



(주)오픈놀(무중력시대영등포) 교육참관 (문상민 노무사)



교육참관(중부기술교육원)_박용호 노무사



교육참관(중부기술교육원)_유병현 노무사



02

일하는 서울시민의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사업개요

사업배경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속의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속의모델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함
- 서울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으며, 서울시 노동정책 분야에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 통로는 부재한 상황임
- 서울시 노동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서울지역 노동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민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하는 서울시민 제안플랫폼(모바일 웹페이지 / 웹자본)

사업 결과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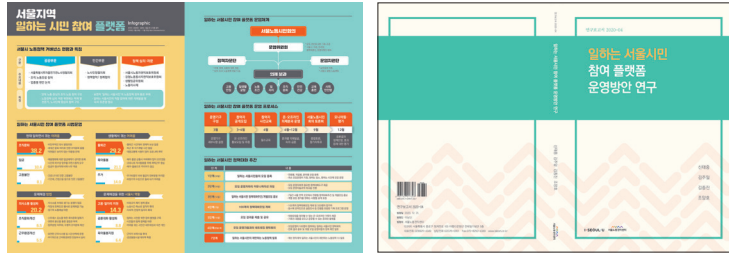
- 서울시의 정책참여 거버넌스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운영방식과 운영특징을 검토하여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설계시 시사점을 도출함
-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일반 노동자의 관심 노동의제, 일터와 삶터에서의 어려움과 문제, 정책제안을 수집·검토함
-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사례 검토, 운영설계시 쟁점 검토,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구조와 운영프로세스를 제안함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사례 검토

- 민주주의 서울(정책의견), 시민참여예산제(예산), 시민공론화(갈등 해결), 서울청년시민회의(정책참여) 사례를 검토하여, 일하는 서울 시민 참여 플랫폼은 정책제안과 집행 이행도, 참여자 효능감 등이 높은 서울청년시민회의 방식을 제안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조례)의 필요성, 참여자 대상 필수교육 필요성, 적합한 논의 의제(노동현안 보다 사회 및 환경변화에 의한 노동의제) 제안

시범운영 결과

- 플랫폼 운영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로 정규직은 1순위로 임금, 비정규직은 1순위로 고용안정을 선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관심주제 차이 존재. 조직노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일생활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관심 주제였던 점이 특징
- 일터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갈등,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10명 중 4명이 선택하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조직노동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슈이지만, 일반 노동자 참여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제기
- 삶터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육아돌봄, 주거 등의 순
-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할로는 일자리 확대정책, 시민과의 대화 채널 확대, 육아돌봄 정책 등의 순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체계

- 서울노동시민회의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의 운영위원회를 제안
-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시의회, 정책자문단, 의제분과장, 운영지원단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한 정책의제 및 이슈에 대한 참여 기획·관리, 의제 선정, 규칙 제정 등의 역할 수행
- 운영지원단은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서울시 노동센터가 역할 수행
- 정책자문단은 의제, 정책, 공론 등에 대해 자문하며 숙의·조사·노동정책 전문가로 구성
- 운영프로세스는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운영기구 구성, 참여자 모집, 참여자 사전교육, 의제분과 운영, 서울노동시민회의 토론회, 모니터링·평가의 과정으로 제안

🌐 '일하는 서울시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https://seoulworkers.kr/>



🌐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all/page/1>

“노동의 가치를 보다널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노동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와 상담사업에도 주력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꼭 필요한 노동환경과 주요정당의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카드뉴스 홍보,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서울시민에게 총 4,300여 건의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공동캠페인 제작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사업과 활동을 일상적으로 홍보해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알리고 노동존중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내용

- 홍보인프라 관리
 - 페이스북 월별 평균 도달 6,974회, 참여자 243명, 노출 13,867회
 - 홈페이지 방문횟수 180,398회, 페이지뷰 326,268회
 - 유튜브 누적 조회수 1,957,891회
- 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 각종 단위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웹포스터 및 웹 슬라이드 각 1건, 코로나 대책 웹홍보물, 스크린 도어 광고물, 현수막 제작, 사업주 교육 웹포스터,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상생일자리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
 -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보고서 제작





-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영상물 1종 제작
- 센터 홍보 기념품 제작 : 다이어리, 위생키트, 알코올수업, 마스크 줄, 3색볼펜

○ 기획 홍보물 제작

- 2월(3·8 여성의 날 관련), 4월(총선 노동관련 주요 정당 공약 관련), 7월(경비노동자 안전 관련), 10월(전태일3법 관련), 11월(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관련), 12월(2021년 바뀌는 노동정책) 총 6회 카드뉴스 발행 및 홈페이지·페이스북 업로드
- 카드뉴스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페이스북 및 센터 유튜브 채널 업로드
-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달력 기획·제작·배포



최종연구발표회_웹포스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카드뉴스



사업 결과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꾸준한 업로드와 유튜브, 페이스북 유료광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취소,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각 사업의 홍보물의 통일적인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각 사업별 홍보 뿐 아니라 카드뉴스 등 기획 홍보물, 센터 홍보를 위한 기념품도 제작, 배포했고 이를 통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활동과 정보 대시민 홍보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seoullaborcenter>



🌐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nbcB80pglCdCG1tFxdy1LQ>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 제작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존중인식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8년부터 이어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및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진행하는 공동 캠페인이며 주변에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기 필수적인 노동을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병원 청소 노동자를 직군으로 선정 시의성 적절하게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일시	내용	비고
~ 9. 1	노동자 직군 선정	병원 청소 노동자
9. 10	영상 제작 업체 미팅	영상 제작 방향성 설정
9. 17~ 11. 16	영상 출연 노동자 섭외, 영상 기획 및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11. 23~ 12. 18	캠페인 진행 기간	캠페인 영상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 진행), 오프라인 홍보물 활용
12. 18	캠페인 종료	
12. 21	캠페인 결과 정리	



공동캠페인 포스터



공동캠페인 리플릿



- 자치구센터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올해 캠페인 노동자 직군 선정 : 코로나 시대 주목받지 못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을 주목하기 위하여 병원 청소 노동자 선정
- 공동캠페인 영상 출연자 섭외(실제 병원 청소노동자) 및 영상 제작 (2분용/20초용)
- 공동캠페인 영상 페이스북, 홈페이지, 유튜브 등 업로드, 포스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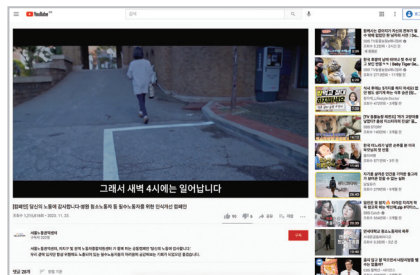
공동캠페인 영상

사업 결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 올해도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었고 높은 조회수와 더불어 댓글에서 호평이 이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온라인 영상 캠페인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RueSRT9Vp8&t=3s>



사 업
배경과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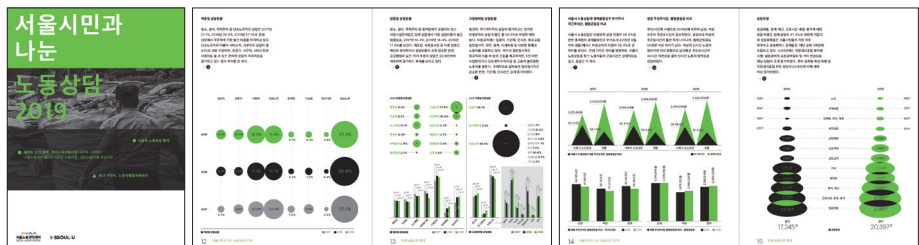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양질의 노동상담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업
결 과

센터는 6년간 안정적으로 노동상담을 수행해 시민들에게 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인지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노동상담은 3,132건에서 4,314건으로 38% 증가했고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장 휴폐업, 직장괴롭힘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해 일하는 시민의 필요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1661-2020 통합노동상담번호를 운영하여 서울전역에서 1661-2020으로 전화하면 가까운 자치구/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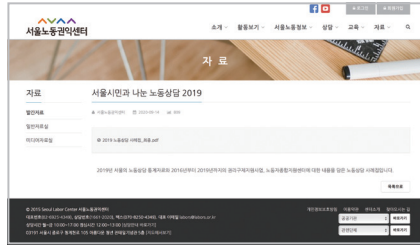


2019 노동상담 사례집



🌐 노동상담사례집 바로가기

<https://www.labors.or.kr/data/center/page/1/post/106>



<2020년 추진실적>

구분	전화	방문	온라인	기타	총계
건수	3,537	80	695	2	4,314

<2017~2020년 추진실적>

	2017	2018	2019	2020
달성	2,271	2,983	3,132	4,314

“노동의 가치를 안락하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0년에도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 노동자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동노동자, 방송미디어산업 종사자, 셔틀버스 노동자를 지원하는 쉼터는 휴게편의뿐만 아니라 공간대관운용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파견 민원응대 업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休서울노동자쉼터 운영



사업 배경과 목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쉼터 3개소와 방송미디어산업 종사자를 위한 쉼터 1개소, 셔틀버스 노동자를 위한 쉼터 1개소 운영하고 쉼터 5개소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 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운영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휴게편의 제공
- 취약계층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교육실, 회의실 등 공간대관 운영
- 쉼터별 주간회의, 쉼터 월간회의, 분기별 쉼터 전원회의, 반기별 쉼터 통합 워크숍을 통한 쉼터사업팀의 관리체계 강화 및 법정 의무교육, 행정사무교육 실시



북창쉼터



합정센터

사업 결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센터의 노동자 쉼터도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쉼터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방역물품 배포를 비롯,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파견 민원응대 업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발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거쳐 2020년 5월 재개관 이후, 쉼터는 서울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쉼터 방역관리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간관리 및 이용자 출입관리, 방역관리시스템 등 지침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간 쉼터 이용인원 : 2020년 19,171명 / 누적 145,272명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쉼터 방문·이용자수 : 19,171명
 - 2016년 3월 개소 이래 누적 이용자 수 : 145,272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 지원정책 홍보 및 민원 안내 (전화응대) 업무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파견근무 수행 (4/26~4/29)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업무 수행

 - 사전 예약제로 운영, 제출서류 발급 등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244명 지원
 - 제1차 신청기간 중 111명 (7/1~7/20)
 - 제2차 신청기간 중 133명 (10/12~10/23)

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보고서

발행인 이남신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일 2021. 6.
기획제작 서울노동권익센터
디자인·인쇄 홍디자인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번호 02.6925.4349
상담번호 1661.2020
팩스 070.8250.4349
이메일 labors@labors.or.kr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신 곁에

